

# '변소를 산 정만서'



글. 김용국

/한국화장실협회 전문위원/

경기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 화성연구회 이사,  
시외시학·경기시학동인  
▶ 논저: 미륵실화연구, 수원문화의 뿌리

**'변소를 산 정만서' 라는 이야기는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였던 어리석음으로 스스로를 잃어내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우를 범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는 이야기다. 살다보면 눈앞의 이익에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사는 것이 아니다. 내일도 살아야 하고 미래도 살아야 한다. 새로운 길을 내는 일도 중요하고, 공장을 짓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삶의 질은 그 모든 것이 함께 고려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는 경제논리로 풀리는 것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선전에서 말하듯,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답해도,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한 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의 화장실문화가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세계인의 찬사가 끊이지 않는 세계 으뜸의 문화를 탄생시킨 것이다.

우리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과 소신을 지닌 그러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알파한 경제논리에 의해 그러한 지도자를 우리 스스로 평가하고 있는 지도 모른다.

농경이 산업의 중심에서 있던 시절, 토지를 비옥하게 하고 지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농사의 기본이었다. 요즘 월드컵 열기를 빌어 말하자면 한국선수들의 실력 향상의 주 요인인 체력에 비유될 수 있을 것이다. 따지고 보면 세상 만사의 근원은 힘에 있는 셈이다. 물론 물리적 힘만이 힘의 전부라 말하는 것도, 최고라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역시 농사가 잘 되려면 토질이 바탕이 되는 재론의 여지가 없으리라.

여하튼 농경사회에 있어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방법은 거름에 있었다. 변소를 칠 때에도 우리는 거름을 푼다 하거나 거름을 친다고 하던 언어생활의 습관을 통해 '똥'이 얼마나 귀한 거름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인지 농경이 산업의 중심에 섰던 시절의 에피소드들은 '똥, 오줌'을 얼마나 귀하게 취급하였는가를 짐작하게 한다. 부자가 되었다는 집안의 이야기에 빠짐 없이 등장

하는 이야기가 아무리 뒤가 마려워도 참고 참으면서 자기 집의 변소에서 용변을 보았다는 이야기이고 용변을 보고 때로는 그것으로 인해 실수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 역시 바로 그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다. 적어도 변소가 화장실이란 이름으로 집안의 실내로 들어오기 전의 이야기다.

## ● 변소를 산 정만서

옛날 정만서라는 사람이 있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똥이 마려운데, 마땅히 변소를 찾기가 어려웠다. 너무 급한 나머지 한 집을 찾아 들었다. 대문을 두드리자 주인이 나왔다.

주인은 "무슨 일이나?" 물었다. 길가던 사람인데, 너무 급해서 그러니 변소 좀 쓰자고 했다. 그러자 주인은 그냥은 쓸 수가 없다고 돈을 달라고 했다. 그땐 얼마냐고 물으니 20냥을 내란다. 참 고약하다 생각했지만 너무 급한 차에 그러마 하고 20냥을 줬다.

똥을 누며 생각을 하니 참 고약하기 그지없었다. 내 집에서 일을 보면 거름이 될 터인데, 거름을 보태준다는 데도 돈을 치르라니 말이다. 세상에 변소 좀 한 번 쓴다고 돈을 내라는 주인의 처사가 야박하기 그지없었다. 그래도 급한 김에 주인이 달라는 20냥을 주고 일을 보게되었다. 그런저런 생각을 하며 이제 일을 다 보고 일어서려니 밖에서 급하니 빨리 나오라고 재촉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 정만서가 생각하니 이 참에 버릇을 고쳐야겠다 마 음먹고는 “아 내가 돈을 내고 쓰고 있으니, 정 급하거 든 돈을 내라.”

주인이 생각하니 참 우습게 되었다. 내 집 변소를 쓰 는데 돈을 내야한다니 말이다. 그래 아니라고 괜찮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그러나 도저히 참아낼 도리가 없었 다. 그래 주인이 하는 말이, “얼마면 되겠소?” 하니 정 만서가 또 심술이 났다. “얼마를 내겠소?” 주인은 20냥 을 다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여 10냥을 주겠다고 했다. 정만서가 웃으면서 “내가 20냥을 주고 쓰는데 10냥을 내겠다니 안되겠다.” 그러자 주인은 다시 다급하여 “종 소 그럼 20냥을 주겠소.”

그러자 정만서는 “20냥으론 안 된다. 누가 20냥에 사 가지고 20냥을 받고 팔겠는가? 정 급하면 30냥을 내시 오.” 주인의 입장에서 참 기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었 다. 그러나 원체 급한지라 “그렇게 합시다. 30냥 드리 름다.” 정만서는 그제서야 30냥을 받고 변소를 내주었 다는 이야기다.

‘똥, 오줌’이 농사에 긴요한 거름이던 시절의 이야기 니 주인이 얼마나 야박한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다. 정만서의 행위가 한편 생각하면 알뜰기도 하지만 독자 의 입장에서 통쾌함을 느끼게 된다. 주인의 지나친 욕 심이 화를 자초한 것이다. 우리 속담에 ‘영악한 놈 제 무덤 제가 판다.’와 딱이다. 결국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것이다. 물론 요즘 같이 흥흥한 세상에서야 지나는 사람 에게 화장실을 쓰게 하겠는가? 그것도 집안의 실내에 있 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오늘날 공중화장실은 그만큼 중 요하다. 낯선 지역에서 업무를 보거나 여행을 하다가 뒤가 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공중의 화장실은 현대인 들에게는 절실한 공간인 것이다.

지난 3월 중국을 다녀온 일이 있다. 중국에서는 공중 의 화장실을 축소(廁所)라고 한다. 축소마다 관리인이 있다. 그러나 단지 관리의 일만을 보는 것이 아니다. 어 쩌면 한 번 사용하는 데 5각(角)의 사용료를 받는 것이 더 주된 업무일 지도 모른다. 아무튼 사용료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은 우리와 비교하여 말이 아니다. 수세식이라곤 하지만 용변의 처리가 완전하지 않다. 앞 서 일을 보고간 사람의 용변을 확인하면서 일을 보게된 다. 수원에 살고있는 나로서는 다소 낯선 풍경과 경험이 아닐 수 없었다. 왜냐하면 수원은 이제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알려진 화장실문화의 선진도시이기

에 더욱 그러했다.

월드컵 경기를 취재하러 오거나 경기 전에 개최도시 를 소개하려고 방문했던 외국인론들에게 한국의 화장실 문화는 매우 인상적이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언론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공중화장실을 소개하였으며 그 문화의 발생지가 수원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이 제 수원은 세계의 화장실 문화를 선도하는 화장실문화 의 메카가 된 것이다. 화장실은 이제 단지 배설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문화의 공간이며, 사색의 공간, 일상에 쫓기는 현대인들에게 생활의 활력을 재충전하는 공간으 로 거듭나야 한다는 거시적 혜안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 이었다.

최근 수원을 방문한 미국의 L.A Times(2002년 6월 6 일 A3면 1단)지에 바바라 데믹(Barbara, Demick)은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도시중의 하나인 수원은 세계 에서 가장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중화장실을 자랑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수원의 공중화장실은 산, 탐, 성, 축 구공 등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내부에는 비데가 갖추어져 있고, 음악이 흐르며 예술품이 벽에 걸려있다. ...이제 ‘수원은 화장실 문화에 있어서 선두주자다’ 라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무튼 ‘변소를 산 정만서’ 라는 이야기는 당장의 눈앞에 이익만을 생각하였던 어리석음 으로 스스로를 얽어매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우를 범 하지 말 것을 경계하고 있는 이야기다. 살다보면 눈앞의 이익에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사는 것이 아니다. 내일도 살아야 하고 모 레도 살아야 한다.

물론 당장 먹고사는 일이 중요하다. 새로운 길을 내는 일도 중요하고, 공장을 짓는 일도 중요하다. 그러나 삶 의 질은 그 모든 것이 함께 고려될 때 향상될 수 있는 것 이다. 3월 중국의 들녘에서는 한창 밭갈이가 진행되고 있었다. 쟁기를 쓰기도 하고, 경운기를 쓰기도 했다. 심 지어 트랙터로 밭을 갈기도 했다. 그 때 생각되는 것이 있었다. 트랙터를 팔아서 모두 경운기로 밭을 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 하고 말이다.

문화를 생각하는 것은 그러한 경제논리로 풀리는 것 이 아니다. 미래에 대한 안목이 필요한 것이다. 어느 선전에서 말하듯,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답해도, 아니 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소신이 없어서는 안 된다 고 생각한다.